



2022. 09. 김원배·유정희 선교사 기도편지14



샬롬!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전 세계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정성스레 한뼘 한뼘 세워 가심을 바라봅니다.



▶ 최근 동향



지난 3개월의 시간도 교회와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6월부터는 다음세대 자녀들을 도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어 3곳의 기독교 보육원과 2곳의 현지교회를 찾아다니며 생활장학금과 큐티 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도 참석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뜻깊은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7월 말 찾아온 오미크론에 가족 모두 감염되어 정신없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며 3주를 고생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을 때 까지는 후유증도 컸지만 다행히 잘 회복하였습니다.



8월 중순이 넘어갈 무렵, 이곳 땅그랑 지역의 종교성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7명의 선교사님들을 한데 모아 설명하기를 “앞으로 이곳 종교성에서 당신들을 모니터링 할것이니 반기별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계신 선교사님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면서 최근 종교성 정책에 민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역 소식



현재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람퐁의 마와르 샤론 신학교 지원과 현지교회 협력, 무슬림 선교를 위한 도시빈민 구제 사역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했던 부분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 여러곳을 살펴보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지교회와 보육원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최대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서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QT(바이블 타임)과 한국어 교실

6월부터 지금까지 큐티책자를 나눠주기 위해 매번 3곳의 현지 기독교 보육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중 남자 아이들만 모여 생활하는 한 보육원에서 소그룹모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안드리 원장님께 아이들과 계속 교제를 하면 어떨까 하여 소그룹 모임을 제안드렸더니 마침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셔서 감사하게도 한국어 교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양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보육원 뿐만 아니라 현지교회 아이들과 중.고.청년들에게도 큐티책을 구입하여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니어로 된 큐티책은 한 권에 2000원 정도 합니다. 저들에게 매월 말씀을 먹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양육이기에 꾸준한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큐티 책자를 나누어주면서 이들이 언제 변화될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꿈이 정말 자기 꿈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고,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비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큐티 말씀을 만나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작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오픈하였습니다. 예전에 살펴보았던 무슬림 마을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현지교회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세완 마을의 폐공장용 빌려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인데 로니 담임목사님께서 방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곳에 다시 화이트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때면 지금도 물이 샅니다. 결국 바닥에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어 목재 책장을 구입하지 않고 물에 젖지 않는 철재 책장과 도서를 구입하여 작은 도서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 같습니다. 책도 구하기 힘들었지만 책 한 권에 평균 2만원 정도였습니다. 아직 책이 많이 부족하지만 재정이 확보되어서 책을 더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의 도서관일지라도 세완마을 지역 1호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 이곳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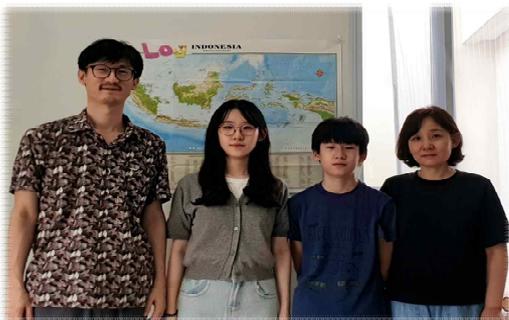


도서관을 준비하면서 세완마을의 현지교회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생활고를 들었습니다. 야키힌 전도사님은 매주 2만원 정도의 사역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도 없기에 매우 궁핍한 삶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웃음을 잃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걱정을 덜어 주고자 기도하면서 저희가 전도사님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아들릭 와렌을 위해 작게나마 매월 후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현지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교회자립을 생각하면 무작정 도와서도 안되지만 무시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후원자들이 계시면 부분적으로 연결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기도해 봅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요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비자 연장입니다. 올해는 지은이가 만 17세가 넘어가서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홈스쿨 중이라서 이곳의 학생비자 스폰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던 중 UMN대학교 인니어 BIPA과정을 등록하여 비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탄히 진행되어 11월달 가족 모두 비자를 발급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사랑 전하게 하소서
- 작은 어린이 도서관의 도서가 많아지고 큐티 모임과 한국어 교실을 축복하셔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꿈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 11월달 가족 모두 비자연장과 발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주관하소서
-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연락처 및 후원안내

선교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14706-073 (KPM 김원배)

연락처 김원배 : +62 0813-8463-7858 / 카오톡ID : kwb0411 / E-mail : kwb0411@naver.com

현지주소 : Kondominium Amartapura Tower A 27B, Jl.Sutan Syahrir No50 Lippo Karawaci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